

예 배	일 시	장 소
주일예배	주일 오후 1시 50분	예배당
청년 큐티 나눔	금요일 오후 9시	Zoom
한민 말씀방	매일	카카오톡

주일 예배 봉사위원

	09. 04	09. 11	09. 18
대 표 기 도	정용현 집사	장래황 성도	김복자 권사
성 경 봉 독	정용현 집사	장래황 성도	김복자 권사

환영 : 예배를 위해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예배 안내 : YouTube에서 „브레멘 한민교회“ 검색하세요.

교회소식

8월 축복인사 -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으세요.(성도 간에)
구주 예수님의 권능이 내게로!(자신에게)

1.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 성도의 교제 - 예배 후 친교실에서 나눔의 시간이 있습니다.
3. 8월 생일 - 황희순 집사, 정용현 안수집사, 김수정 성도
4. 오늘 부로 비대면 예배를 종료하고 대면(예배)만 드립니다.
5. 영상팀 사정으로 9월4일(주일)부터 설교 동영상을 upload하지 않습니다.
6. 이사 - 임미수, Schwass 성도:Strasbourg(프랑스), 한명희, 이종길 성도 가정:Hannover

교우동정

미국 방문	이에준 형제
논문 발표	노지민 형제 - 9월 1일(목)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감사헌금	
십 일 조	
선교헌금	
합계(Euro)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교회(히10:25)”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담임목사 이 상 호(Sang Ho Rhee)

예배반주 조 영 재 형제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9, 51,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http://www.brehanmin.de>

주일 예배 Gottesdienst

- 찬 양 Gemeindelied Liebevoll 찬양팀
- 송 영 Chor 반주자
- 기 원 Altargebet 이상호 목사
-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새번역) 다같이
- 찬 송 Gemeindelied 420장 다같이
- 기 도 Gebet 노지민 성도
- 성경봉독 Predigttext에 10 : 1 - 3(구p761).....노지민 성도
(Esther 10:1-3)
-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새 가족 환영).....이상호 목사
- 헌 금 Gemeindelied zur Kollekte이상호 목사
- 설 교 Predigt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 이상호 목사
- * 파송찬양 Abschlusslied 선한 능력으로 다같이
- * 축 도 Segnungsgebet 이상호 목사
- * 송 영 Chor 반주자

*** 표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헌금은 예배 전 입구에서 봉헌해 주세요.

† 다음 주일 기도 담당 : 정용현 안수집사

† 기도제목

1. 나를 통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소망을 가지게 하소서
2. 한민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학업과 생업에 기름 부어 주소서
3. 브레멘의 각 대학에 입학한 한국유학생들이 한민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4. 우크라이나와 세계 평화와 경제 안정을 위해
5. 김선택, 장보경(형가리)선교사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소서

아름다운 불복, 아름다운 거절

Barack Obama 미국 대통령 재임시절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전해 동료 36명을 구한 공로로 미국의 영웅이 된 Dakota Meyer 예비역 해병대 병장은 미군 최고 무공훈장인 “명예훈장(Medal of Honor)”을 받았습니다. 이 훈장은 보통 사후에 수여되었지만 마이어 병장은 최초로 생존해 있는 상태에서 수여받았습니다. 당시 상부에서는 간즈갈 계곡 전투에서 죽은 동료 4명의 시신을 찾기 위해 적진에 뛰어들려는 마이어 병장에게 너무 위험하다며 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명령을 어기고 적진으로 들어가서 4명의 시신을 모두 찾고 위험에 처한 36명의 동료 병사까지 구했습니다. 그러나 메달 수여소식을 듣자마자 ‘나는 영웅이 아니다. 나는 명령에 불복종했다. 이 훈장은 그날 전투에 참전했던 모든 장병의 몫이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불복으로 영웅이 된 그가 또 한 번 아름다운 거부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마이어 예비역 병장은 전역 후 바쁜 행사 일정으로 뉴욕 소방관 시험에 응시하지 못했습니다. 4년에 한 번인 소방관 시험을 못 본 것을 아쉬워하자 뉴욕 소방당국에서는 그에게만 예외로 시험을 볼 수 있게 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마이어는 ‘혼자만 예외를 받는 것은 양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 원칙과 가치와 타협하는 일이기 때문에 거절하겠습니다,’고 자신의 뜻을 밝혔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마땅히 할 바를 다하는 사람이 진정 용기 있고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말씀을 실천하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다 / 김장환 목사

(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목사)

*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게 하는 것이 사탄이 이용하는 전통적인 계략이다. - Nehemiah Rogers -